임상미술심리연구 제11권 제2호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2021. Vol. 11, No. 2, 83-110.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 반응특성 연구*

김 승 미** · 박 성 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DAPR 검사의 반응차이와 판별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로는 서울 외 5개 지역의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02명을 검증하였다. 측정도구로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DAPR 검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상·하위군으로 분류하여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각 영역의 반응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들의 변별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상·하위군이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바람의 세기, 비와 사람의 접촉, 총 스트레스 항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판별력은 76.1%이다. 대처자원 영역에서는 얼굴표정, 스트로크, 총 대처자원 영역의 항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판별력은 74.6%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상·하위군이 스트레스 영역에서 비의 세기, 비와 사람의 접촉, 총 스트레스 영역의 항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판별력은 71.0%이다. 반면, 대처자원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DAPR 검사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림심리검사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사회복지사,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석사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조교수, elly9691@sookmyung.ac.kr

www.kci.go.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과 함께 최근까지 급속하게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종래의 복지 서비스는 공공부조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로 영세민과 차상위계층까지 사회복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공공부조와는 구분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영역 자체가 확대되기 시작했다(김영종, 2017).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공급체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보호나 현물지급 등 단순한 지원을 벗어나 프로그램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87년 사회복지전담요원제도가 실시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로 확대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에서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졌다(한동우, 2019). 또한, 최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복지허브화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생산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의 협력과 연계의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의 범위, 역할 등 모든 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있다.

업무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감정노동'은 업무상 필요한 특정 감정만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직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회복지사는 복지 수요자와의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불평과 불만, 하소연을 듣고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문성호, 박승곤, 노지혜, 2019).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9)에서 감정노동을 주제로 민간·공공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27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서비스 대상자에게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정관리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문항에 가장 높은 평균점수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고객 만족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노동의 다양한 관점과 정의에 대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감정노동을 설명하였다(김민주, 2006; 김수지, 오영아, 이명선, 2015; 류상일, 권승, 2018; 이항아, 윤명숙, 2016). 이는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감정보다 조직이 요구하는 표현규범을 표면적으로 나타낼 때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 2,605명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직무에 대해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2013) 보고에 의하면 대체로 소수의 인원이 상당한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서

www.kci.go.kr

비스대상자를 수시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까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정신 스트레스 질환인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무려 60%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직무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어홍선, 이종숙, 2020). 이러한 객관적 도구는 무의식적인 내면을 표현하는 투사검사와 다르게 응답자가 스스로 지각하는 의식적인 측면을 측정한다는 면에서 응답자가 이상적으로 바라거나 사회적인 바람직성에 따른 반응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유경미, 2019).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써 잠재된 무의식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투사적 그림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백중열, 2012; 최진숙, 이근매, 2014). 역사적으로 투사적 그림검사는 1906년에 독일의 정신 의학자 Fritz Mohr가 인물을 중심으로 최초로 그림검사 절차를 표준화하였으며, 1930년대 이후부터 표현 및 반응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 투사검사로 발전하여 특히 임상심리학 영역에서 '투사검사'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강차연, 2006). 현재 투사적 그림검사는 미술심리치료 영역에서 내담자의 성격, 성향 등의 심리 상태를 초기에 진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술치료사가 내담자에게 연필, 크레파스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종이 위에 무엇인가 표현하도록 제시하며 검사가 진행된다(백중열, 2012). 투사적 그림검사는 평가도구로써 객관적 검사에 비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시간적·심리적 부담감을 덜게 하며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감정이나 내적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방어와 왜곡이 낮은 장점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효율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신윤정, 임나영, 2017; 주리애, 하정희, 2019; 최진숙, 이근매, 2014). 이러한 투사적 그림검사 중에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자원을 주제로 하는 '빗속의 사람 그림(DAPR; Draw-A-Person-in-the-Rain)'검사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Jue & Ha, 2019; Lichtenberg, 2014; Willis, Joy, & Kaiser, 2010). 이에 따라 다양한 대상군과 주제로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에 대한 반응특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특정 직업이나 환경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상혜와 이근매(2014)의 부사관 268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 반응특성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군에 비해 비의 양, 비와 바람의 세기, 비와 구름의 접촉, 구름의 수와 면적, 번개의 수와 위력, 웅덩이의 수와 면적

www.kci.go.kr

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제로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 반응특성과 관련하여 간호사, 육군사병,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측정 검사 도구로써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강현정, 이근매, 2014; 신윤정, 임나영, 2017; 주리애, 하정희, 2019). 이처럼 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 반응특성에 대한 연구는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가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 보완적 도구로써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감정노동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 반응특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림검사가 표준화 및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가 임상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측정 도구로써 객관적 질문지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에서 나타난 스트레스와 대처자원 영역의 반응특성 차이와 판별력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에서 나타난 스트레스와 대처자원 영역의 반응특성 차이와 판별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부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과 행정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45여개 기관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동의하

www.kci.go.kr

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사회복지사 약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3부를 제외하고, 총 20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변인별 수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여	145	72
	남	57	28
연령	20대	84	42
	30대	81	40
	40대	24	12
	50대	11	5
	70대	1	0
	계	201	100
사회복지기관 유형	노인 관련 복지시설	6	3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9	4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34	17
	의료, 정신건강 관련 복지시설	16	8
	다문화가족 관련 복지시설	7	3
	지역종합사회복지관	56	28
	행정복지센터(복지부서)	63	31
	시·구청(복지부서)	9	4
	기타 단체	2	1
현재 소속기관 근무기간	1년 미만	34	17
	1년~3년	104	51
	4년~6년	30	15
	7년~10년	18	9
	11년~13년	7	3
	14년 이상	9	4

www.kci.go.kr

구분		N	%
사회복지분야 경력	1년 미만	25	12
	1년~3년	78	39
	4년~6년	45	22
	7년~10년	30	15
	11년~13년	10	5
	14년 이상	14	7
직책	관장	2	1
	부장	5	2
	과장	2	1
	팀장	23	11
	일반사회복지사	91	45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66	33
	기타	13	6
최종학력	전문대졸	10	5
	대졸	166	82
	대학원 이상	26	13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	128	63
	2급	72	36
	없음	1	0
	기타	1	0
주요담당업무 (중복응답)	주요담당업무행정1	93	38
	주요담당업무직접2	110	45
	주요담당업무재가3	19	8
	주요담당업무기타4	23	9
	계	245	100
주요서비스대상 (중복응답)	주요서비스대상노인1	82	18
	주요서비스대상아동2	58	12
	주요서비스대상장애인3	83	18
	주요서비스대상정신4	40	9
	주요서비스대상지역5	70	15
	주요서비스대상청소년6	37	8
	주요서비스대상한부모7	44	9
	주요서비스대상다문화8	29	6
	주요서비스대상기타9	23	5
	계	466	100

www.kci.go.kr

<표 2>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별 연구대상자 특성

감정노동 수준	N(%)	M(SD)	직무스트레스	N(%)	M(SD)
상위군	33(16.3)	37.85(2.39)	상위군	36(17.8)	65.80(3.50)
중위군	135(66.8)	29.50(2.87)	중위군	140(69.3)	54.33(3.22)
하위군	34(16.8)	22.03(2.38)	하위군	26(12.9)	43.85(3.42)
전체	202(100)	29.61(5.31)	전체	202(100)	55.02(6.94)

2. 연구 도구

1) 감정노동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Morris와 Feldman(1996)의 연구를 통해 김민주(1998)가 호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감정노동 척도를 본 연구대상자인 사회복지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본 도구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감정노동 9문항 구성

하위 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감정노동 빈도	7개	1,3,4,5,7,8,9
감정표현 노력정도	2개	2,6
전체	9개	1~9

2)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표준화 전국조사연구(NSDSOS: National Study for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Occupational Stress)에 의하여 전국 30,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개발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S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24문항)을 사용하였다. 채점은 각 문항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에 대한 전체적 평가는 각 영역별로 실제 점수를 단순 합산하

www.kci.go.kr

는 방식과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으며(장세진, 고상백, 2005),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점수를 각 영역별로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본 설문지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15개 문항으로 역채점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는 .81로 나타났다. 문항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직무 스트레스 단축형 24문항 구성

하위 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직무요구	4개	1,2,3*,4
직무자율	4개	5*,6*,7*,8*
관계갈등	3개	9*,10*,11*
직무불안정	2개	12,13
조직체계	4개	14*,15*,16*,17*
보상부적절	3개	18*,19*,20*
직장문화	4개	21,22,23,24
전체	24개	1~24

* 역문항

3)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

본 연구에서는 Lack(1996)이 고안한 PITR-SRC 척도를 여러 선행연구들(강현정, 2011; 김순란, 2004; 이미경, 2006; 손무경, 2004)에서 실시한 채점기준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 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DAPR 검사 척도의 내용 구성

영역	항목 내용	항목 수
스트레스 영역	비의 양, 비의 세기, 비의 모양, 바람의 세기, 비와 사람의 접촉, 비와 구름의 접촉, 구름의 수, 구름의 면적, 번개의 수, 번개의 위력, 번개와 사람의 관계, 웅덩이의 수, 웅덩이의 면적, 웅덩이와 사람의 관계	14
대처자원 영역	직접 보호물의 수, 간접 보호물의 수, 전체 보호물의 수, 직접 보호물의 적절성, 간접 보호물의 적절성, 얼굴모습, 얼굴표정, 인물의 크기, 인물의 위치, 전체 인물의 모습, 스트로크	11
전체		25

채점기준과 점수체계는 3점 체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스트레스 영역에서 높은 점수일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대처자원 영역에서 높은 점수일수록 대처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채점기준과 점수체계는 <표 6>, <표 7>과 같다.

www.kci.go.kr

<표 6>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 점수체계

no	항목	채점기준		
		1점	2점	3점
1	비의 양	없거나 적다	보통이다	많다
2	비의 세기	약하다	보통이다	강하다
3	비의 모양	없거나 점	원, 타원	직선, 직선과 원
4	바람의 세기	없다	약하다	강하다
5	비와 사람의 접촉	접촉이 없다	조금 접촉	많이 접촉
6	비와 구름의 접촉	접촉이 없다	조금 접촉	많이 접촉
7	구름의 수	없다	1~2개	3개 이상
8	구름의 면적	좁다	보통이다	넓다
9	번개의 수	없다	1~2개	3개 이상
10	번개의 위력	없다	보통이다	강하다
11	번개와 사람의 관계	멀다	가깝다	직접 접촉
12	웅덩이의 수	없다	1~2개	3개 이상
13	웅덩이의 면적	좁다	보통이다	넓다
14	웅덩이와 사람의 관계	멀다	가깝다	직접접촉
총 스트레스 점수				

<표 7>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 '대처자원 영역' 점수체계

no	항목	채점기준		
		1점	2점	3점
1	직접 보호물의 수	없다	1개	2개 이상
2	간접 보호물의 수	없다	1개	2개 이상
3	전체 보호물의 수	없다	1~2개	3개 이상
4	직접 보호물의 적절성	없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5	간접 보호물의 적절성	없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6	얼굴모습	모두 가려짐	부분만 보임	전체가 보임
7	얼굴표정	기분이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기분이 좋다
8	인물의 크기	아주 작다	보통이다	아주 크다
9	인물의 위치	가장자리	중심에서 벗어남	중심
10	전체 인물의 모습	상반신까지	하반신까지	전체
11	스트로크	불균형	부분	전체적 균형
총 대처자원 점수				

4) 평정자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그림 채점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위해 전체 그림 자료 중에서 무선표집한 21점을 연구자, 미술치료 전문가 2인과 함께 평정하였다. 평정한 그림에 대해 급내상관관계(ICC)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스트레스 영역 14개 항목에 대한 평정자 ICC값은 .96이며 대처자원 영역 11개 항목에 대한 ICC값은 .96이다. 전체 스트레스와 대처자원 영역의 신뢰도 ICC값은 .98으로 나타나 높은 일치도를 볼 수 있다.

www.kci.go.kr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은 후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부산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과 행정기관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회복지사 약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동의를 얻은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원치 않는 경우 자료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회수 자료에 대한 익명성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집단으로 진행될 경우, 연구대상자가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어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DAPR 검사 진행 시 연구대상자의 필압과 선의 굵기를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균일한 연필심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진행 순서는 연구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위해 성별, 나이, 근무지, 주요업무 등이 포함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설문을 먼저 실시하였으며 투사검사인 빗속의 사람 그림을 객관적 검사 전에 진행하였다. 설문 진행은 약 10분~20분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평정자간 신뢰도 검사를 진행한 이후 연구자 1인이 DAPR 3점 점수체계에 따라 채점을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처리 및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의 평정자 간 신뢰도 분석을 위해 급내상관분석(ICC:Intra-Clas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의 스트레스 영역과 대처자원 영역의 반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상·하위군은 감정노동 척도 점수의 평균에서 ±1SD 기준으로 상·하위군을 분류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항목들의 변별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의 스트레스 영역과 대처자원 영역의 반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www.kci.go.kr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상·하위군은 직무스트레스 척도 점수의 평균에서 ±1SD 기준으로 상·하위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항목들의 변별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에 따른 DAPR 검사 반응특성 및 판별력

1)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상·하위군 간 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 반응특성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에 따라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의 반응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하위군으로 집단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정의숙, 김갑숙, 2008) 감정노동 전체 평균점수(M=29.61)와 표준편차(SD=5.31)를 이용하였다. 전체 평균에서 +1SD 이상 집단을 감정노동의 상위군(33명)으로, -1SD이하 집단을 감정노동의 하위군(34명)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과 적은 하위군 간의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의 스트레스 영역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바람의 세기(t=2.26, p<.05), 비와 사람의 접촉(t=3.43, p<.01), 총 스트레스(t=2.88, p<.01)로 나타났다.

<표 8>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상·하위군 간 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 반응특성 차이

	항목	감정노동 상위군(n=33)		감정노동 하위군(n=34)		t
		M	SD	M	SD	
1.	비의 양	2.06	0.90	1.79	0.84	1.25
2.	비의 세기	1.97	0.88	1.68	0.68	1.52
3.	비의 모양	2.91	0.29	2.85	0.36	0.70
4.	바람의 세기	2.06	0.79	1.62	0.82	2.26*
5.	비와 사람의 접촉	1.82	0.85	1.24	0.50	3.43**
6.	비와 구름의 접촉	1.15	0.44	1.06	0.34	0.96
7.	구름의 수	1.33	0.60	1.15	0.44	1.46
8.	구름의 면적	1.52	0.87	1.24	0.65	1.49
9.	번개의 수	1.00	.00	1.00	.00	

www.kci.go.kr

	항목	감정노동 상위군(n=33)		감정노동 하위군(n=34)		t
		M	SD	M	SD	
10.	번개의 위력	1.00	.00	1.00	.00	
11.	번개와 사람의 관계	1.00	.00	1.00	.00	
12.	웅덩이의 수	1.09	0.29	1.18	0.46	-0.91
13.	웅덩이의 면적	1.24	0.66	1.26	0.67	-0.14
14.	웅덩이와 사람의 관계	1.15	0.44	1.24	0.65	-0.61
	총 스트레스	21.30	3.33	19.29	2.30	2.88^{**}

$^{*}p<.05$, $^{**}p<.01$

유의적인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람의 세기' 항목의 경우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이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에 비해 바람의 세기가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하위군에서 '바람의 세기'가 가장 적게 표현된 그림의 사후 질문(PDI;Post Drawing Interview)결과, 주인공의 현재 기분에 관해 '좋다' '행복하다' 등으로 주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상황에서 비를 즐기는 모습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와 사람의 접촉' 항목의 경우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이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에 비해 비와 사람의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와 사람의 거리가 더 가까우며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감정노동 상위군에서 '비와 사람의 접촉'이 가장 많이 표현된 그림의 사후질문 결과 비로 인해 부정적인 상황과 정서를 표현했다. 반면 감정노동의 하위군에서 '비와 사람의 접촉'이 가장 적게 표현된 그림의 사후질문 결과, 주인공의 현재 기분에 관해 '행복하다' 등 기분이 좋은 감정에 관하여 표현했다. 대표적인 그림의 예는 <부록>에 제시되었다.

2)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의 판별력

판별분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카이제곱 검증결과 판별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15.63, $p<.05$). 감정노동 상위군과 감정노동 하위군 간의 판별력은 구조행렬 결과 비와 사람의 접촉(.70, $p<.01$), 스트레스 영역의 총점수(.38, $p<.01$), 바람의 세기(.34, $p<.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www.kci.go.kr

<표 9>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의 판별분석

판별변인	감정노동	
	비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바람세기	0.42	0.34*
비와 사람의 접촉	1.01	0.70**
총 스트레스	0.13	0.38**
상수	-4.999	
Wilks의 람다	0.78	
카이제곱	15.63**	
정준 상관	0.47	
판별력	76.1	

*p<.05, **p<.01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을 DAPR 검사 스트레스 항목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은 33명 중 22명으로 분류되어 66.7%를 예측하며,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은 34명 중 29명으로 분류되어 85.3%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별력은 67명 중 51명이 분류되어 76.1%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감정노동 상·하위군에 대한 분류

감정노동	예측 소속집단				전체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			
	N	%	N	%	N	%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	22	66.7	11	33.3	33	100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	5	14.7	29	85.3	34	100

3)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상·하위군 간 DAPR 검사 대처자원 영역 반응특성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과 적은 하위군 간의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의 대처자원 영역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얼굴표정(t=-3.49, p<.01), 스트로크(t=-4.26, p<.01), 총 대처자원(t=2.88, p<.01)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표 11>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상·하위군 간 DAPR 검사 대처자원 영역 반응특성 차이

항목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 (n=33)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 (n=34)		t
		M	SD	M	SD	
1.	직접 보호물의 수	1.88	0.48	2.06	0.49	-1.51
2.	간접 보호물의 수	1.18	0.39	1.15	0.36	0.38
3.	전체 보호물의 수	1.97	0.30	2.09	0.38	-1.41
4.	직접 보호물의 적절성	2.24	0.75	2.59	0.70	-1.95
5.	간접 보호물의 적절성	1.33	0.74	1.29	0.72	0.22
6.	얼굴모습	2.58	0.66	2.82	0.52	-1.7
7.	얼굴표정	2.30	0.73	2.82	0.46	-3.49**
8.	인물의 크기	2.09	0.46	1.91	0.51	1.5
9.	인물의 위치	2.30	0.68	2.44	0.61	-0.87
10.	전체인물의 모습	2.88	0.48	2.94	0.34	-0.61
11.	스트로크	2.09	0.77	2.76	0.50	-4.26**
총대처자원		22.85	2.72	24.88	2.31	-3.31**

**p<.01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얼굴표정’ 항목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이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에 비해 인물의 얼굴 표정이 웃는 모습 등의 좋은 기분을 표현하였다. 감정노동 상위군에서 ‘얼굴표정’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을 그린 그림의 사후질문 결과, 현재 기분에 대해 ‘화가난다’, ‘슬프다’ 등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였다. 반면 감정노동 하위군에서 ‘얼굴표정’에서 기분이 좋은 웃는 표정을 그린 그림의 사후질문 결과, 그림 속의 주인공의 현재 기분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였다. 선의 질감을 나타내는 ‘스트로크’ 항목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상위군이 하위군에 비해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떨림이 표현되는 불균형의 표현이 더 많이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인 그림의 예는 <부록>에 제시되었다.

4)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DAPR 검사 대처자원 영역의 판별력

이를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검증결과 판별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χ^2=19.81, p<.05).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과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 간의 판별력은 구조행렬 결과 스트로크(.72, p<.00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얼굴표정(.49, p<.01), 총 대처자원(.02, p<.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www.kci.go.kr

<표 12>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DAPR 검사 대처자원 영역 판별분석

판별변인	감정노동	
	비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얼굴표정	0.81	0.49**
스트로크	1.12	0.72***
총 대처자원	0.01	0.02*
상수	-4.98	
Wilks의 람다	0.73	
카이제곱	19.81***	
정준 상관	0.52	
판별력	74.6	

*p<.05, **p<.01, ***p<.001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을 DAPR 검사 대처자원 항목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감정노동 상위군은 33명 중 23명으로 분류되어 69.7%를 예측하며, 감정노동 하위군은 34명 중 27명으로 분류되어 79.4%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별력은 67명 중 50명이 분류되어 74.6%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상·하위군에 대한 분류

감정노동	예측 소속집단				전체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			
	N	%	N	%	N	%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	23	69.7	10	30.3	33	100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	7	20.6	27	79.4	34	100

2.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DAPR 검사 반응특성 및 판별력

1)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상·하위군 간 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 반응특성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라 DAPR 반응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하위군 집단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정의숙, 김갑숙, 2008) 직무스트레스 전체 평균점수(M=55.02)와 표준편차(SD=6.94)를 이용하였다. 전체 평균에서 +1SD이상 집단을 직무스트레스의 상위군(36명)으로,

www.kci.go.kr

-1SD이하 집단을 직무스트레스의 하위군(26명)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과 낮은 하위군 간의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이 각 항목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비의 세기 (t=2.30, p<.05), 비와 사람의 접촉 (t=3.02, p<.01), 총 스트레스 (t=3.24 ,p<.01)로 나타났다.

<표 14>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상·하위군 간 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 반응특성 차이

	집단통계량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n=36)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군(n=26)		t
		M	SD	M	SD	
1.	비의 양	2.28	0.85	2.04	0.92	1.06
2.	비의 세기	2.00	0.79	1.54	0.76	2.30*
3.	비의 모양	2.89	0.40	2.85	0.46	0.39
4.	바람의 세기	1.83	0.77	1.46	0.71	1.93
5.	비와 사람의 접촉	1.67	0.86	1.15	0.46	3.02**
6.	비와 구름의 접촉	1.14	0.49	1.08	0.39	0.54
7.	구름의 수	1.25	0.55	1.15	0.46	0.72
8.	구름의 면적	1.36	0.76	1.23	0.65	0.71
9.	번개의 수	1.08	0.37	1.00	0.00	1.36
10.	번개의 위력	1.11	0.46	1.00	0.00	1.44
11.	번개와 사람의 관계	1.00	.00	1.00	.00	
12.	웅덩이의 수	1.17	0.45	1.08	0.27	0.91
13.	웅덩이의 면적	1.22	0.59	1.04	0.20	1.74
14.	웅덩이와 사람의 관계	1.17	0.51	1.04	0.20	1.38
	총 스트레스	21.17	3.10	18.65	2.88	3.24**

*p<.05, **p<.01

유의적인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의 세기' 항목의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군에 비해 비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비와 사람의 접촉' 항목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상위군이 직무스트레스 하위군에 비해 비와 사람의 접촉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 상위군에서 '비와 사람의 접촉'이 많이 있는 그림들의 사후질문 결과 주인공의 현재 기분으로는 '피하고 싶다', '슬프다', '막막하다' 등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상위군과 하위군에 따른 DAPR 검사 반응에서 '비의 세기', '비와 사람의 접촉'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의 예는 <부록>에 제시되었다.

www.kci.go.kr

2)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의 판별력

판별분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카이제곱 검증결과 판별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χ^2=13.35, p<.01).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과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군 간의 판별력은 구조행렬 결과 총 스트레스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와 사람의 접촉, 비의 세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의 판별분석

판별변인	직무스트레스	
	비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비의 세기	0.39	0.31*
비와 사람의 접촉	0.69	0.50**
총 스트레스	0.19	0.57**
상수	-5.522	
Wilks의 람다	0.80	
카이제곱	13.35**	
정준 상관	0.45	
판별력	71.0	

*p<.05, **p<.01, ***p<.001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의 항목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 상위군은 36명 중 24명으로 분류되어 66.7%를 예측하며, 직무스트레스 하위군은 26명 중 20명으로 분류되어 76.9%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별력은 62명 중 44명이 분류되어 71.0%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직무스트레스 상·하위군에 대한 분류

직무스트레스	예측 소속집단				전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군			
	N	%	N	%	N	%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	24	66.7	12	33.3	36	100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군	6	23.1	20	76.9	26	100

3)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상·하위군 간 DAPR 검사 대처자원영역 반응특성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DAPR) 검사의 대처자원 영역에서 나타난 차이 비교에 관한 검정 결과는 <표 17>과 같이 나타났으

www.kci.go.kr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 모두 대처자원 영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상·하위군 간의 DAPR 검사 대처자원 영역 반응특성 차이

구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 (n=36)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군 (n=26)		t
		M	SD	M	SD	
1.	직접보호물수	1.89	0.46	1.92	0.39	-0.30
2.	간접보호물수	1.17	0.38	1.12	0.33	0.558
3.	전체보호물수	1.92	0.28	2.00	0.00	-1.78
4.	직접보호물적절	2.39	0.77	2.65	0.69	-1.4
5.	간접보호물적절	1.28	0.66	1.23	0.65	0.278
6.	얼굴모습	2.64	0.64	2.62	0.70	0.138
7.	얼굴표정	2.33	0.76	2.65	0.63	-1.77
8.	인물크기	2.19	0.58	2.04	0.20	1.507
9.	인물위치	2.42	0.69	2.58	0.64	-0.93
10.	전체인물모습	2.94	0.33	2.85	0.54	0.881
11.	스트로크	2.36	0.68	2.50	0.71	-0.78
총 대처자원		23.53	2.69	24.15	2.07	-0.99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 결과에 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에 따른 DAPR 검사의 총 스트레스 영역과 총 대처자원 영역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노동과 DAPR 검사의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감정노동과 상관관계가 높았던 변인인 직무스트레스와 DAPR 검사의 반응특성 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를 포함한 총 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선행연구(강현정, 2011; 이상혜, 이근매, 2014)와 일치한다. 총 대처자원 영역 또한 본 연구를 포함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선행연구 결과(강현정, 2011; 이상혜, 이근매, 2014)와 일치한다. 이는 DAPR 검사의 총 스트레스와 총 대처자원의 결과가 감정노동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www.kci.go.kr

이상에서 살펴본 스트레스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과 적은 하위군 간에 '바람의 세기', '비와 사람의 접촉', '총 스트레스' 항목이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람의 세기 항목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은 하위군에 비해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비의 기울기를 사선으로 30°이상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오는 날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비를 대처하기 어렵고 강한 스트레스로 표현한 것임을 볼 수 있다(강현정, 이근매, 2014). 또한 그림의 사후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바람의 세기를 강하게 표현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바람의 세기를 적게 표현한 사회복지사에 비해 현재 기분에 대해 감정이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상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상태 등으로 주로 우울감과 같은 저조한 기분 상태를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많아질수록 우울 정도가 높아지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임현승, 2020).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이 적은 하위군에 비해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비와 사람의 접촉에 대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이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에 비해 비와 사람의 접촉이 많이 나타났다. 비와 사람이 직접 닿거나 보호물이 있음에도 몸에 비의 접촉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이 스트레스를 온 몸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현정, 이근매, 2014). 빗 속에 있는 사람은 인물화의 해석과 같이 볼 수 있으며(정길수, 2012), 인물화에서 인물은 자아상의 의미로 자아의 성격 및 무의식적인 동기 등을 평가할 수 있다(Jothimani & Kumar, 2016; Machover, 1949). 대체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의 인물상에서 시사된 일반적인 인상은 인물의 크기가 작았다. 인물의 크기가 작게 표현된 경우, 자신을 작게 느끼거나 열등감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오승진, 류정미, 2019). 또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이 하위군에 비해 인물화에서 선의 묘사가 스케치선과 압력이 가볍고 끊어진 선 등과 같이 불안정함과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많았다. 이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아상 간의 관계에 상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고려해보면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이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에 비해 스트레스를 체감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대처자원 영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얼굴표정', '스트로크' 항목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높은 상위군과 적은 하위군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얼굴 표정에 대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낮은 하위군에서 대체로 미소 띤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등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감정노동이 높은 상위군에서는 대체로 무표정, 일자로 된 입

www.kci.go.kr

을 표현하였다. 인물상의 표정은 정서를 반영하며(안예진, 2019), 자기상을 나타낸다(강현정, 이근매, 2014)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를 고려해보면,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이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에 비해 그림 속의 얼굴표정이 좋으며, 행복감을 더 많이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로크에 대한 결과는 감정노동이 높은 상위군이 감정노동이 적은 하위군에 비해 대체로 선의 질 사용에서 압력이 가볍고 끊어진 선, 희미한 선, 떨림이나 연속적이지 않은 선 등 부분적으로 불균형한 특징이 많이 나타났다. 희미한 선의 경우 표면에 나서기 꺼리는 자기주장이 부족하며 마음이 약한 특징이 있으며 불안, 소심함, 불안정함, 불확실성, 우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오승진, 류정미, 2019).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이 직무스트레스가 적은 하위군에 비해 선의 질감을 나타내는 스트로크에서 부분적인 떨림과 불연속적인 선과 끊어진 선과 같은 불안정한 선의 표현을 더 많이 나타낸 것으로 보고 된 연구(강현정, 이근매, 2014)와 일치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많은 상위군이 하위군에 비해 불균형한 선을 더 많이 표현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DAPR 검사의 총 스트레스와 총 대처자원의 유의한 결과는 DAPR 검사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을 측정하는 데 유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DAPR 검사의 총 스트레스 영역의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DAPR 검사 반응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와 일치한다(김미진, 이근매, 우정민, 2013). 따라서 DAPR 검사의 총 스트레스 결과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유효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스트레스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와 관련된 '비의 세기', '비와 사람의 접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의 세기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이 직무스트레스가 적은 하위군에 비해 대체로 비를 표현한 선의 길이를 길게 표현하여 비의 세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DAPR 검사에서는 비의 세기가 강하고, 비의 모양이 다양하고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정영인, 2019). '비'는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 더 많이 그려지는 날씨요소로 나타났는데(정진숙, 김갑숙, 2010),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높아질수록 우울과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이항아, 윤명숙, 2016). 이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이 직무스트레스를 비의 세기로 투사하여 비의 굵기와 길이를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와 사람의 접촉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군에 비해 비와 사람의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

www.kci.go.kr

스가 높은 상위군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군에 비해 자아에 직접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가 인물상에 투사되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연구에서 보고한 감정노동과 DAPR 검사 스트레스 영역의 반응과 일치한다. 이를 고려해볼 때,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하위군에 비해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를 체감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반면 대처자원 영역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상·하위군에 따른 차이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DAPR 검사의 대처자원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일치한다(김상효, 2011).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라 대처자원은 차이가 없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도구로써 DAPR 검사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DAPR 검사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림심리검사 도구로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차연 (2006). 미술치료에서의 심리평가: 미술치료평가와 투사적 그림검사를 중심으로.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6(2), 137-159.

강현정 (2011).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현정, 이근매 (2014).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연구. 미술치료연구, 21(4), 681-700.

국가인권위원회 (2013).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11-1620000-000477-01). 서울: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미진, 이근매, 우정민 (2013).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20(3), 479-496.

김민주 (1998). 호텔종업원의 감정노동이 직무관련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1(2), 129-141.

김민주 (2006). 감정노동의 결과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의 비교연구: 호텔종업원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5(1), 35-57.

김상효 (2011).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와 빗속의 사람 그림 (PITR)의 반응특성.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김수지, 오영아, 이명선 (2015). 감정노동 여성근로자의 직종에 따른 직무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Crisisonomy, 11(3), 231-246.

김순란 (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빗속의 아이'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김영종 (2017).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와 위탁 제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pp. 3-2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류상일, 권승 (2018). 공공부문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7(3), 153-167.

문성호, 박승곤, 노지혜 (2019). 사회복지사의 소진, 감정노동,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9, 103-125.

백중열 (2012). 투사적 그림 검사를 활용한 아동화 심리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32, 255-276.

손무경 (2004). PITR 을 통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측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www.kci.go.kr

신윤정, 임나영 (2017). 빗속의 사람 그림 (PITR) 검사에 나타난 직장인의 성격 특성 예측변인.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7(1), 57-73.

안예진 (2019).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빗속사람그림(DAPR)검사 반응특성.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어홍선, 이종숙 (2020).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성과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8(6), 501-511.

오승진, 류정미 (2019). 미술 심리 진단 평가. 서울: 동문사.

유경미 (2019). 빗속의 사람 그림 (DAPR) 을 활용한 국내 학술지 연구 동향. 미술치료연구, 26(2), 275-291.

이미경 (2006)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빗속의 아이 그림 반응 특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이상혜, 이근매 (2014). 부사관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반응특성. 예술심리치료연구, 10(3), 39-62.

이항아, 윤명숙 (2016).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우울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4(1), 48-75.

임현승 (2020).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34, 75-90.

장세진, 고상백 (2005).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 스트레스, 13(3), 183-197.

정길수 (2012). 대학생의 빗속의 사람 그림 반응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미술치료연구, 19(5), 1029-1044.

정영인 (2019).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따른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 반응특성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5(4), 55-82.

정의숙, 김갑숙 (2008).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71-82.

정진숙, 김갑숙 (2010). 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따른 '자신이 좋아하는 날 (FKD)' 그림검사 반응 연구. 미술치료연구, 17(3), 633-648.

주리애, 하정희 (2019). 육군 사병의 빗속의 사람 그림 반응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26(6), 1119-1134.

최진숙, 이근매. (2014). 투사 그림검사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미술치료연구, 21(1), 1-1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사회복지사 통계 연감(한사협-2019-10-051). 서울:

www.kci.go.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동우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 20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43-5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Jothimani, T., & Kumar, S. D. (2016). Draw A Person Test: A Case Study. *SIS Journal of Projective Psychology & Mental Health. 23*(2), 118-121.

Jue, J., & Ha, J. H. (2019). The Person-in-the-Rain Drawing Test as an Assessment of Soldiers' Army Life Adjustment and Resilience. *Psychology, 10*(11), 1418-1434.

Lichtenberg, E. F. (2014). Draw-A-Person-in-the Rain Test. In L. Handler & A. D. Thomas (Eds.), *Drawings in assessment and psychotherapy: Research and application*(pp. 164 - 183). New York: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Machover, K. (1949).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drawing of the human figure: A method of personality investigation.*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Morris, J. A., & Feldman, D. C.(1996), "The dimens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986-1010.

Willis, L. R., Joy, S. P., & Kaiser, D. H. (2010). Draw-a-Person-in-the-Rain as an assessment of stress and coping resources. *The Arts in Psychotherapy, 37*(3), 233-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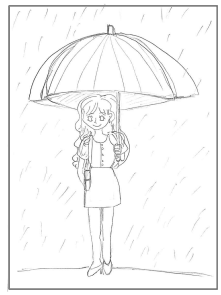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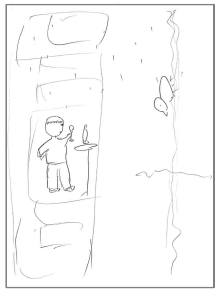
원 고 접 수 일 : 2021. 06. 20.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7. 30.
게 재 확 정 일 : 2021. 08. 26.

www.kci.go.kr

<부록> 감정노동 상·하위군의 DAPR 검사 반응특성 그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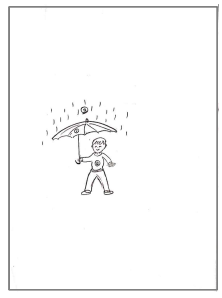
	감정노동 상위군	감정노동 하위군
'바람의 세기' 예시		
'비와 사람의 접촉' 예시		

www.kci.go.kr

	감정노동 상위군	감정노동 하위군
‘얼굴 표정’ 예시		
‘스트로크’ 예시		

www.kci.go.kr

<부록> 직무스트레스 상·하위군의 DAPR 검사 반응특성 그림 예시

	직무스트레스 상위군	직무스트레스 하위군
‘비의 세기’ 예시		
		
‘비와 사람의 접촉’ 예시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DAPR (Draw-A-Person-in-the-Rain) Assessment Based on Social Worker's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Kim, Seung-mi** · Park, Sung-hae***

This study was aimed to verify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from DAPR according to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f social workers. The research subjects were 202 social workers who were working in public and private fields in 5 locations outside of Seoul and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DAPR test were conducted. We used higher and lower groups for final data analysis according to emotional labor level and job stress level, and performed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verified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DAPR between high and low emotional labor groups of social workers. The detailed items of the stress area that showed significant results were wind strength, rain and human contact, total score of stress, and the overall discriminatory power was 76.1%. and coping resources area that showed significant results were facial expressions, strokes, total score of coping resources, and the overall discriminatory power was 74.6%. Second, this study confirmed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DAPR between the high and low job stress groups of social workers. The detailed items of the stress area that showed significant results were the strength of the rain, rain and human contact, total score of stress, and the overall discriminatory power was 71.0%.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rea of coping resources.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using DAPR test as a tool to measure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f social workers.

Key words: Social Worker, Emotional Labor, Job Stress, DAPR(Draw-A-Person-in-the-Rain)

---

* This paper is part of master's thesis of Art Therapy in the Graduate School of Psychotherapy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Master's Program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Psycho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pt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Psycho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lly9691@sookmyung.ac.kr

www.kci.go.kr